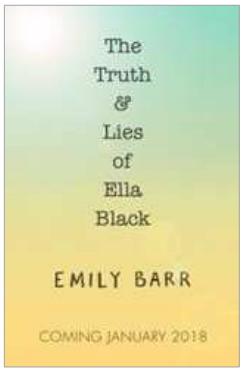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TRUTH AND LIES OF ELLA BLACK
가제 : 엘라 블랙의 진실과 거짓말
저자 : Emily Barr
출판사: Penguin
발행일: 2018년 1월 11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불가리아, 캐나다,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러시아, 브라질 등 *13*개 언어로 번역될 예정**
*** *25*개 언어로 번역되어 *5*만권 이상 판매되며 큰 화제를 낳은 *YA* 데뷔작 『*The One Memory of Flora Banks*』의 작가가 선보이는 두 번째 *YA* 소설**

아주 어릴 때부터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또 다른 존재와 홀로 싸워온 아이, 가장 친한 친구는 물론 함께 사는 부모님에게도 그 무섭고 기괴한 존재를 숨기며 살아온 엘라는 자신을 통째로 집어 삼키려는 어두운 자아를 억누르느라 하루에도 몇 번씩 고비를 맞이한다. 처음에는 그저 '괴물'이라 불렀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쁜 엘라(Bad Ella)라는 의미로 '벨라(Gella)'라 이름 붙인 엘라의 두 번째 자아는 열일곱 살이 된 지금, 수시로 고개를 들고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엘라의 머리를 두드려댄다. 원하는 것이 관철될 때까지 엘라가 두개골이 쪼개지는 고통을 느끼도록, 귓가에 윙윙대는 환청 때문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도록 끈질기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벨라 때문에 엘라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십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엘라는 자신에게 벨라라는 또 다른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꽁꽁 숨기고 아무렇지 않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왔다. 그러나 엘라가 자라는 만큼 함께 성장한 벨라의 음울하고 사악한 영향력을 모두 막을 수는 없고, 엘라는 여덟 살 때부터 단짝으로 지낸 친구 릴리와 늘 곁을 지켜주는 친구 잭 외에 다른 인간관계는 제대로 맺지 못하는 아이가 되었다. 학교 친구들은 뜬금 없이 무서운 말을 내뱉거나, 말을 해야 할 때 입을 꾹 닫아버리는 엘라를 이상한 아이로 여기며 다들 싫어했다. 학교에서 엘라가 모두에게 꺼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은 오직 릴리만이 알고, 최대한 엘라를 보호해주려고 혼자 애를 썼다. 엘라는 모두에게 숨겨온 진실을 릴리에게만은 털어놓고 싶었지만 기겁한 릴리마저 자신을 외면할까 봐 두려웠다. 벨라의 본성, 손에 닿는 대로 파괴해야 숨통이 트이는 그 악마적 본능에 자신이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이 잠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릴리에게 다 말할 수는 없었다. 때로는 그냥 엘라를 버리고 벨라의 모습으로 계속 살고 싶은 욕구마저 든다는

사실도 드러낼 수 없었다.

벨라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다. 새하얀 종이를 펴고, 여기저기 잘려나간 신체의 일부와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 피범벅이 된 사람들을 미친 듯이 그리려고 했다. 벨라가 그런 욕구를 표출할 때면 엘라는 어쩔 수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했다. 벨라가 그린 그림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무서웠지만, 벨라는 자꾸만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들여다보자고 엘라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친구들과 함께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학교에서 수업 중일 때도 엘라는 멈출 줄을 몰랐다.

조용한 켄트의 작은 마을에서 대학 입학을 앞둔 엘라는 잭과 릴리만 아니면 아무것도 미련 남는 것이 없는 이곳을 떠날 날만 고대하고 있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엄마아빠가 엘라 몰래 유독 싸움이 잦다는 사실은 눈치채고 있었지만, 엘라는 기껏해야 다른 친구들의 부모들처럼 이혼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겠거니 생각했을 뿐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여느 날처럼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던 중 부모님이 난데없이 학교를 찾아오고, 수업 중에 불려 나가고, 그대로 함께 차에 타고 공항으로 직행해서 영문도 모른 채 비행기에 오르고, 적도를 넘어 리우데자네이루라는 곳으로 가게 될 줄 상상한 적도 없었다. 게다가 부모님은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이유도 모른 채 낯선 나라, 낯선 도시에 온 엘라는 대체 왜 부모님이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치듯 이곳에 와야 했는지 알아내려 안간힘을 쓴다. 마침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긴 자신의 삶이 온통 거짓말투성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엘라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실을 밝히러 집을 나가기로 결심한다. 부모님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곳, 엘라가 가리라곤 상상치도 못할 곳을 찾아 빈민가로 발길을 향한 엘라는 그곳에서 억눌린 벨라의 존재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광폭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느끼지만 더 이상 제어하지 못한다. 그리고 왜 자신에게 벨라라는 자아가 생겨났는지, 끔찍한 비밀을 깨닫기 시작한다.

빠른 전개, 흡입력 있는 이야기들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에밀리 바(Emily Barr)는 런던에서 저널리스트로 일하다가 1년 동안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첫 소설인 성인 스릴러 소설 『BACKPACK』을 발표하고 이 책으로 'WH 스미스 뉴 탤런트 상(WH Smith New Talent Award)'을 수상했다. 이후 성인 소설과 YA 소설을 발표해 왔다. 2016년 출간된 첫 YA 소설 『The One Memory of Flora Banks』는 25개 언어로 번역되어 5만 권 이상 판매되며 돌풍을 일으켰다.

제목 : DARE MIGHTY THINGS
가제 : 위대한 도전
저자 : Heather Kaczynski
출판사: HarperTeen
발행일: 2017년 10월 10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흡입력 있고 창의적이면서 긴장과 흥미로운 요소가 가득한 이 책에 시작부터 정신을 빼앗겼고, 계속 결말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읽었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Illuminae Files*』의 작가 에이미 커프먼**
* **"영리하고 저돌적인 여주인공, 다채로운 등장인물, 긴장감 가득한 경쟁으로 이루어진 액션 소설. 읽기 시작하면 그만두고 싶지 않을 것이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소설가, 엘리자베스 브릭스**

사람들 사이에서 '로켓 마을'로 불리는 미 항공우주국 바로 옆 동네, 헌츠빌에서 태어난 카산드라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우주인이 되는 꿈을 꾸며 자랐다. 그래서 로켓 추진장치를 연구하는 아버지 덕에 NASA 법무팀에서 별 것 아닌 일을 돕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된 것만으로도 매일 가슴이 쿵쾅쿵쾅 뛸 지경이었다. 물론, 남들보다 똑똑하고 눈치도 빠른 편이라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웬 만큼 지능이 뛰어난 로봇을 쓰면 다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불가능을 가능한 일로 만든 곳, NASA에서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조금 아쉽기도 했다. 그런데 마치 이런 카산드라의 속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너무나 꿈꾸던 일을 현실로 만들어줄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다. 우주인이 될 수 있는 테스트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NASA 국장과 면담을 하러 들어설 때만 해도 그런 놀라운 소식이 전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국장은 카산드라에게 우주인 양성 기관인 존슨 우주센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시작했다는 이야기로 운을 뗐다.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류의 삶이 과거보다 훨씬 열악해진 후 우주 사업도 수십년째 중단된 상황임을 카산드라도 잘 알고 있기에 더 예상치 못했던 소식이었다. 국장은 이 새로운 우주 탐험에는 단 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원활히 활용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미 뇌 기능의 발달 속도가 느려진 25세 이상 성인은 참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하여 기존에 양성한 우주인들 외에 새로운 인재, 18세부터 25세 사이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우월한 인물을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요건에 맞는 사람을 철저히 NASA 관계자의 추천으로만 모집한 뒤 몇 개월에 걸쳐 엄격한 심사와 테스트를 거쳐 한 명을 뽑는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국장은 이제 곧 열여덟 살이 되는 카산드라를 추천하려 한다고 이야기했다. 지원 가능한 연령을 겨우 넘어선 최연소 도전자가 되어보면 어떻겠느냐는 국장의 물음에 이미 카산드라는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무조건 도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반드시 우주로 나아가는 세계 최초 최연소 우주인이 되고 말리라 굳게 다짐했다.

사실 카산드라는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전 세계적으로 불임이 전염병처럼 확산되어 자연 임신과 분만이 희귀한 일이 된 이후, 시험관 아기와 소위 '디자이너 베이비'라 불리는, 유전자가 각별히 선별된 아이를 낳는 것까지 법적으로 어느 정도 허용됐다. 유전학자인 카산드라의 엄마는 자연 임신을 시도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직후 곧바로 과학의 힘을 빌리기로 결정했다. 법에 따라 태아의 미적인 요소는 건드릴 수 없도록 되어 있었지만 운동 능력과 유전질환 등 건강에 관련된 유전자, 지적 수준에 관한 유전자는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빼어나게 예쁘진 않아도 누구보다 튼튼하고, 똑똑한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카산드라는 한창 디자이너 베이비가 붐을 일으킨 시대에 최초로 태어난 성공적인 사례 중 한 명이었다. 국장도 추천할 대상으로 카산드라를 염두에 둔 이유에 그런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털어놓았다.

타고난 유전자 덕에 어릴 때부터 언어, 예술 분야에서 늘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카산드라는 단 한 명의 우주인을 뽑는 이번 컨테스트를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보여줄 절호의 기회로 여긴다. 적극 찬성한 아버지와 달리 걱정하며 반대한 엄마까지 겨우 설득하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모인 경쟁자들과 만난 카산드라는 처음 결심대로, 반드시 우승해서 우주 탐사를 해내고 말리라 다짐한다.

그러나 국장이 경고한 대로, 엄청나게 까다로운 도전과 테스트가 이어졌다. 체력과 정신력, 지적 능력을 한계까지 발휘하도록 요구하는 시험이 줄줄이 이어지며 끊임없이 인내심을 시험하고, 평소에도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던 카산드라는 낯선 사람들과 계속 함께 지내는 환경 때문에 큰 어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서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느낀 뜻밖의 동지애와 친근함에 스스로도 놀라며, 차츰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한다. 카산드라로선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본 타인과의 유대감이었다.

그런데 고된 테스트와 도전이 이어지던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사고가 터지면서 프로그램 전체의 진짜 목적이 어쩌면 우주인 선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다. 미심쩍은 요소들이 하나 둘 발견되고, 카산드라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된 에밀리오와 미츠코는 NASA나 정부가 설명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 때문에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 같다는 의혹을 계속 제시한다. 유망한 참가자들이 계속 탈락하면서 남은 도전자가 자꾸 줄어들 때마다 카산드라 역시 이 컨테스트에 어딘가 이상한 요소가 분명 존재한다는 꺼림직한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우주로 향할 새 로켓이 발사될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과연 카산드라와 남은 도전자들은 이 수상한 프로젝트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자칫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된다.

<저자 소개>

헤더 카진스키(Heather Kaczynski)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현재 미국 항공우주국(NASA)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십대들을 위한 책을 쓰고 있다.